

## 기록학과 읽기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Archives and Reading

이영남(Lee, Youngnam)\*

1. 서론
2. 이야기 공연
  - 1) 등장인물
  - 2) 지하철 이야기
  - 3) 이야기 공연의 대본
3. 기록의 무대
  - 1) 이미지
  - 2) 공간구성
4. 기록읽기의 특징과 의미
  - 1) 계층적 읽기
  - 2) 기록의례와 관계지향의 기록관리
5. 결론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최종심사일: 2023년 01월 17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1월 26일.

■ 기록학연구 75, 249-297,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5.249>

## 〈초록〉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아카이브 안에서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열람을 통해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에서 기록 읽기〉를 탐색하는 이 글은, 열람이 오히려 아카이브에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록읽기를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적 논의로 제시한 것은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읽기에 적합한 이야기 형식을 찾기 위해, 시어터(theater)를 모티브로 삼았다. 시어터는 “공연, 동시에 공연을 하는 장소”의 뜻이다. 시어터에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카이브도 이야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이용해 이야기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기록을 기반으로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없는 아카이브만의 특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도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실천방안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실천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는 비단 이야기 작업의 효과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카이브의 본령인 기록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야기 작업은 사람들이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그들의 삶으로 수용하여 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읽기, 기록읽기, 안부, 낭독, 대화, 공연, 연극, 이야기, 시어터, 스토리텔링, 기록의 무대, 기록의례, 기록관리, 관계**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ading records in archives. This study views it from a different standpoint. Archivists can deal with

reading service as narrative practices. Theater is the main motive of this study. Theater plan of archival services is a trial of narrative practices in archive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how to manage the archival theater in archives. Archivists can participate in the policies that will benefit society as a whole. The various readings in archives are acts of narrative practices. People have to get chance of reading records in archives.

**Keywords :** reading, archival reading, hello, reading aloud, discussion, performance, play, narrative, narrative practices, theater, storytelling, archival theater, archival ritual, relation

## 1. 서론

이 글은 서울기록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시민들과 함께 읽는 기록 읽기 모임’을 단서로 삼아,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의 방법과 의미를 탐구한 연구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는 일단의 시민들이 아카이브로 모여 들어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기록을 읽는 것이다. 읽기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에 주목했다. 특히 <이야기를 공연한다>는 이미지를 논의의 씨앗으로 삼았다. 그것은 마치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것처럼, 참여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공연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읽는 것이다. 기록읽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배우가 된다.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된다. 연극이란 배우와 관객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의 장면은 연극의 공연 장면으로 향한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에는 두 관점이 있다. 하나는 아카이브의 관

점이다. 아카이브 입장에서 기록읽기란, 시민들에게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물론 열람 서비스도 읽기의 제공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려는 읽기 서비스는 열람과는 거리가 있다.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는 이야기 장르(소설, 영화, 연극, 뮤지컬, TV 드라마 등)에 근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열람 관행에서는 이야기 장르의 기록읽기를 시도하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 이르면 피해갈 수 없는 논점이 하나 생긴다. 그것은 기록관리의 위치와 역할이다. 기록관리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담론으로 1999년 이후 기록공동체가 생산한 사회적 자원이다. 아키비스트의 특징적 행동은 기록관리이다.

아카이브가 이야기 작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록관리와 무관할 수 없다. 이야기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 해도, 아카이브가 기록관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야기 작업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에서 아카이브/기록관리가 없었어도 이야기는 무궁했다. 물론 이야기 작업의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빙 한다는 전통적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록관리의 양적 확대라는 점에서 열람실의 관행처럼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에서는 이탈해야 할 관행이다. 이야기를 수집전략으로 삼는 방법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 수집전략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기록관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면서도 현재의 관행적 기록관리나 수집전략으로서 이야기조차 유보하자고 한다면,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 글은 파드되(pas de deux, 발레 용어. 무용수 두 명이 함께 춤추는 것)의 이미지를 자락에 깔았다. 기록읽기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록관리와 이야기 작업의 파드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록은 아카이브에서 수행하는 이야기 작업에서 그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지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작업을 모색할 때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굳이 보존서고에서 기록을 꺼내오지 않고서도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시각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록을 읽어야 비로소 가능한 그런 이야기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관리와 이야기 작업의 파드되(또는 기록과 이야기의 파드되)로서 기록읽기를 탐구하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관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기록읽기는, 아카이브가 제공한 기록을 ‘행동으로 읽는 것’이다. 우리에게 읽기의 통념으로 다가오는 것은 독서(책읽기)이다. 독서에는 도서관에서 전개되는 침묵의 독서,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혼자 편안한 자세로 읽는 자유로운 독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독서 등이 있다. 독서는 읽기의 아주 견고한 통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독서는 인간의 읽기에서 하나의 편린일 뿐이다. 읽기는 목적, 장소, 대상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배우의 대본읽기는 연기라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관객에게 연극은 배우의 읽기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연주자의 악보읽기는 연주라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관객에게 연주는 연주자의 읽기가 소리로 표현된 것이다. 건설현장의 도면읽기는 건설노동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아카이브 건물도 건설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읽기에서 세워졌다. 대본, 악보, 도면은 책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록이다. 그 기록은 각기 필요로 하는 곳에서 충실히 읽힌 다음에 아카이브로 속속 집결한다. 어딘가에서 그곳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된 기록은,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특정한 목적과 맥락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힌다. 기록은 읽기를 통해 삶의 일부가 된다.

읽기를 수동적 행위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 읽기는 인간의 삶에 변화를 주는 최전선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2006, 스타니슬라스 드앵 2017).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연극

무대에서, 거리에서,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읽기는 인간의 다음 행동을 요구한다. 연주를 요구하고 연기를 요구하고 요리를 요구한다. 인간의 읽기는 지식탐구이기 이전에 지식의 적용과 행동의 요구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를 수행하려면, 인간의 읽기를 책읽기의 통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문자 이후 인간의 삶을 주동한 힘에는 읽기의 행동이 있다. 오늘도 사람들은 곳곳에서 기록읽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읽기의 관점에서 아카이브는 터미널 같은 곳이다. 터미널은 버스가 도착하는 곳, 떠나는 곳이다. 어딘가에서 읽기의 임무를 마친 기록이 도착하는 곳, 새로운 읽기를 향해 출발하는 곳이 아카이브이다.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의 틀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반면, 시민들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록읽기를 열람, 독서에 가둘 수 없다. 그것은 대본읽기(연기-연극), 악보읽기(연주-연주회), 도면읽기(건설노동-건물)처럼 열람, 독서와는 다른 사회적 계열에 속한다.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공연하는 행동’으로 기록읽기를 수행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카이브의 실천경험과 연극의 실천경험을 검토했다. 아카이브의 실천경험으로 검토한 세부 논의는 직접적 서비스론, 기호론, 사건론, 관계론 등이다. 각각의 논지와 이 글에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했는가는 2장~5장에서 각각 서술한다. 직접적 서비스론과 기호론은 3장, 사건론은 2장과 3장, 관계론은 3장과 4장에 들어 있다. 연극의 실천경험도 놓여 있다. 연극에 주목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연극이 이야기를 무대에서 공연으로 전개한다는 점, 관객의 반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때문이다(김석만 2001. 박명진 등 2022. 데이비드 볼 2007. 리차드 코트니 2014. 오스카 G. 브로케트 2014). 특히 개인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즉흥으로 공연하는 연극인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er)에 주목했다. 플레이백 시어터는 대본 없는 연극의 일환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다(가요 무나카타 2022, 조나단 폭스 2018). 연극은 이 글에서 전개하는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에 적합한 이야기 장르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체를 기조로 삼았다. 필자는 서울기록원 기록 읽기 사건에 참여했다. 그 시간은 목격자의 시간이기도 했다.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말하려면 이야기체가 필요했다. 사회과학적인 논문체의 서술방식과 다를 수 있다. 2장에서는 기록읽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서술했다(이야기 공연). 3장에서는 기록읽기의 장소를 서술했다(기록의 무대, archival theater). 2장과 3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연극의 시어터(theater) 개념이 관통한다. 2장에는 기록읽기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록을 읽으며 나누었던 ‘지하철 이야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스태프 역할도 2장에 서술되었다. 서울기록원은 아카이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서술했다. 4장에서는 기록읽기의 특징과 의미를 짚었다. 특징에 대해서는 ‘계층적 읽기’로 정리했고, 의미에 대해서는 ‘기록의례’로 짚었다. 기록의례를 서술하면서 ‘관계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해 말했다. 각각의 개념은 4장에서 맥락을 따라가며 상술한다. 5장 결론에서는 시민의 인정과 지지를 말했다. 현재 아카이브가 직면한 문제를 사회적 설득력의 부재로 보고, 이 난관을 타개하려면 시민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 때문이다.

아무튼 기록을 읽자, 마치 연극을 공연하는 것처럼(as if theater).

## 2. 이야기 공연

### 1) 등장인물

서울기록원 3층 교육장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디근자로 모여 앉

은 사람들 가운데에 놓인 탁자에는 기록이 놓여 있었다. 서울기록원 기록읽기 모임은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로 시도되었다(2022.10.13.~2022.11.3.).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는 기록을 읽으며 개인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일정한 극적 장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읽기는 이야기로 전환되고, 이야기는 공연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서울기록원 기록읽기는 한 달 동안 공연이 되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인물이라는 말을 썼지만, 행위자로 넓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인(기관, 단체)도 인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카이브를 방문한 시민들이었다. 20대 3명, 30대 3명, 그리고 40대 1명 등 일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서울기록원 주변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일은 다양했다.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전문직 종사자, 노동운동가로 낮에는 각자의 사회적 자리에서 일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배우로 변신했다. 그들은 밤마다 아카이브를 방문한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이야기를 공연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서울기록원이었다. 서울기록원은 2019년에 개관했다. 공공아카이브 혁신의 아이콘, 서울기록원의 한 걸음은 공공아카이브 분야의 굵직한 진보라 평가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밤에 3층 교육장을 개방하고 보존서고에서 과감히 꺼내온 기록을 탁자 위에 올려 두었다. 서울기록원은 무엇보다도 방문한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환대했다. 그러다 공연이 시작될 무렵이면, 군말 없이 관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이야기 공연을 지켜보며 반응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였다. 협회는 기록관리기관에서 일하는 기록전문가들이 결집한 이익단체이다. 그러나 기록전문직

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아카이브 분야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대안적 논의를 주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태프 역할을 맡았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모으고, 곳곳에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붙이고, 좌석을 배치하고, 마이크와 음향을 테스트하고, 커피와 빵을 준비하고, 선물(에코백 등)도 준비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틈틈이 안내했다. 또한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기록도 선별했다. 그러다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벤치는 기술구역(Technical Area, 축구용어. 경기장과 관람석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에 있었다. 협회는 벤치에 앉아 전면으로는 배우들의 이야기 공연을 지켜보았고, 후면으로는 관객의 반응을 함께 받았다. 벤치에 앉은 스태프로서 무대의 이야기 진행에 개입하는 한편, 관객을 배려하는 일에도 열중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기록학 연구자였다. 그는 이야기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시어터(theater) 이미지를 공유하며 대본 작성자 역할을 맡았다. 그가 작성한 대본에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었다. 배우들은 대본을 읽으며 각 장면에서 자신이 어떤 대사를 하며 연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대본 작성의 요지는 기록읽기 모임에 어떤 장면들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무대에도 직접 올라 조연(배우)의 역할도 맡았다. 일본의 전통연극인 노(能)에는 주연인 시테와 조연인 와키가 등장한다. 조연인 와키는 주연인 시테에게 질문을 던져 주연의 말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다(미셸 푸코, 와타나베 모리아키 2016). 연구자도 질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등장인물은 기록의 무대에서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 관객, 스태프는 기록의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들은 기록의 무대에서 인간의 서사적 행동을 잘 표현했다. “야밤에 아카이브를 급습했다. 빠르게 커피를 마셨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사실 첫 장면에서는

당황도 했다. 그러나 긴장은 이내 풀렸다. 난생 처음으로 아카이브를 알았고 기록이란 것도 처음 읽었다. 생소했지만 기록은 흥미로웠다. 사람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공공기록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번 무대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참가자의 발표문. 일부 문장은 표현을 다듬었다). 20~30명의 사람들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얼굴로 다음 공연을 기약했다. 이야기 공연은 회를 거듭하면서 첫날의 낯설고 어색함을 스스로 걷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 2) 지하철 이야기

이야기는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다. 질서를 잡은 것은 기록이었다. 서울기록원이 제공한 기록은 ‘서울지하철 1호선 기록’(1971년~1976년)이었다. 지하철(전철)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대중교통이다. 시민들이 손에 잡은 기록은 한국에서 처음 건설된 지하철인 서울지하철 1호선의 건설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이었다. 보존할 가치가 있어 평가 선별된 기록, 분류-정리-기술을 거쳐 보존상자에 담겨 보존서고에 관리되는 기록, 언젠든 서비스 될 태세를 갖춘 기록이야말로 이야기 공연의 질서를 잡았다. 한 참가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하철 건설에 관한 정부문서를 읽었습니다. 읽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제 삶에 들어 있는 기억을 상기했습니다. 공무집행과 정보전달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문서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50년 전에 이 문서를 작성했던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공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도 정부문서를 이용해 기억 하나를 만들고 갑니다.”(참가자의

발표문. 일부 변경).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행간에 시민의 기억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캐릭터로 등장했다. ‘철이’는 유난히 아버지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다. 작은 키의 ‘철이’는 출입문에서 까치발을 세워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며 즐거워했다. 지하철은 독산에서 가산디지털단지로 들어가는 고가를 달리고 있었다. 순간 지하철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작은 키의 ‘철이’가 철길의 레일을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인데, 여기에 사건이 하나 끼어 들었다. “우리는 지금 은하철도 999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그것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적인 반응이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사실에 집중하라면서 그것은 너의 키가 작아서 그런 것이니 괜한 잡념에 빠지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앞으로는 열심히 밥 먹으면서 얼른 커야 한다고 재촉했다면, ‘철이’의 은하철도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주를 같이 날았다. 이 사건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아들의 마음 속 심상에는 문장 하나가 들어갔다. (그때 은하철도 999에서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써 인정하고 사랑했다). 사건을 겪은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철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와 격렬하게 논쟁해야 했다. 은하철도가 실제로 있다는 ‘철이’와 이야기와 현실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는 친구는 서로 맞붙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었다. ‘철이’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 친구는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친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우정).

다음은 ‘덕후’이다. 그날 ‘덕후’는 용산에서 온양온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다. 그런데 그날은 참 슬픈 날이었다. 10.29 참사(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덕후’는 오래전부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덕후’가 아산 신정호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로 했던 날이었다(기다리던 덕질이 있어야 했던 날이었다). 그러나 참사로 인해 행사가 급히 취소가 되었다. 사회적 참사가 한 개인의 삶에 급격하게 밀려 들었다. ‘덕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4·16 참사 때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나갔고 잊지 않겠다는 기억행동으로 반응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던 ‘덕후’는 그날 아침 지하철에서 자신도 시민으로 반응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계열의 기록행동을 선택했다. 그것은 연민의 눈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행동이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전개되는 삶에 관심을 보이며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경기도, 서울, 충청도 등 3개 광역에 걸친 107.4km 구간을 2시간 20분에 걸쳐 짐승처럼 달려갔다. 그날의 지하철은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는 소처럼 순한 짐승이었다. 캐리어를 책상 삼아 문제집을 푸는 학생, 전철을 잘못 탔다는 사실에 놀라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몇 명의 젊은이들, 듣기 거북한 격렬한 언어로 시국상황을 논하는 할아버지들,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소리, 엄마 품에 안겨 목청껏 우는 아이. 엄청난 죽음이 있었던 다음 날이었지만, 삶은 지하철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덕후’는 그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삶의 지속성을 기록해야 했다. ‘덕후’는 기록읽기 모임을 함께 하는 동무들에게 삶의 관점으로 죽음을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덕후’의 이야기 공연에도 엔딩의 순간이 오자, 그는 잔잔한 톤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쳐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쓸쓸한 죽음에 대해, 지하철에서 만난 활기찬 삶을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지하철 안에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동무들의 삶에 안녕과 평안이 있기를 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렇게 ‘덕후’는 읽기공동체 멤버들의 삶을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었다.

‘전장(戰場)의 안개’(fog of war. 비디오 게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것은 ‘공문서’이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이것은 ‘사문서’입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면서, 자신은 머릿속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근거를 둔 기억을 가져왔다고 했다. ‘안개’가 가져온 기록은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 〇〇〇 메모본>이었다. 메모본의 기록형태는 처음에는 업무용 다이어리의 노선도, 지하철역에 비치된 휴대용 노선도였다. 다이어리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노선도에는 자유롭게 끄적인 메모가 있었다. 그러다 아이패드를 구입한 후에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썼다. 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 ‘안개’의 노선도에는 역마다 색색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성장기 사건들이 그 역에 정착해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막내를 출산하려고 입원한 병원, 동아리의 첫 공연이 있었던 곳, 방송국 인기가요 공개방송 방청, 축구교실, 오토바이를 샀던 곳, 좋은 짬질방이 있던 곳 등. 지하철이 없었다면 삶은 없었을 것만 같았다. 지하철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런 삶도 기억에 단단히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안개’는 청소년기를 지하철 기록을 만들며 지냈다. 그런데 ‘안개’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하철 안이 아니라 지하철역과 그 주변의 지역이었다. ‘안개’는 ‘김정호 놀이’(대동여지도로 만든 김정호처럼 모험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대동여지도로 만든다는 놀이)를 하면서 역 주변의 지역을 탐험하는 들뜬 모험가로 살았다. ‘안개’는 자기 기록이 증거 하는 것은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했다. 그것은 지하철의 길이만큼 늘어난 세계관이 아니었다. 김정호 놀이로 상징되는 발바닥 행동이었다. ‘안개’는 자신이 발바닥을 짚으며 걸었던 거리만큼, 발바닥행동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만큼이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정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작가’도 말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지하철은 별천지였다. 지하철을 둘러싼 스펙터클(TV로 생중계되던 요란한 지하철 개통식, 지하동굴 같은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의 놀라움, 지하철이 실어 나른 각종 국제행사, 낮에도 밤에도 백열등으로 밝은 지하철 내부 등)을 가져왔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파업의 격렬함도 있었다. ‘작가’는 노동운동가였다. 그가 전하기로는 1975년 개통 이후 50여 년간 지하철 노조는 10여 차례의 파업을 했다고 한다. ‘작가’는 지하철의 죽음도 담담히 말했다. 지하철 건설현장의 화재로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지하철, 수많은 자살자들이 뛰어난 승강장, 그들을 보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지하철 기관사들의 죽음 등이 있었다. ‘작가’는 엄청난 문장력으로 쓴 문장을 가져왔다. 그가 기록했던 지하철에는 개인사와 시대사가 교직된 빼어난 역사가 있었다. 지하철은 스펙터클과 파업과 죽음이 함께 있는, 그래서 환상과 비애와 정의가 공존하는 별천지였다.

이런 식이었다. 캐릭터가 등장해 이야기를 공연했다. 일곱 개의 이야기 공연을 세세하게 다 소개할 수가 없어 그 중의 일부만 소개했다.

아카이브가 보유한 기록은 하나이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기록을 읽으며 나올 수 있는 개인의 이야기는 무한하다. 이번에는 일곱 명이 일곱 개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한 알의 씨앗이 밀밭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단위는 무엇이였을까. 지하철 이야기의 단위는 시퀀스였다. 시퀀스(sequence)는 비교적 독립적인 흐름을 갖는 이야기 단위로, 그 아래에는 몇 개의 장면(scene)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철이’의 은하철도 999 시퀀스에는 여러 개의 장면(아버지와 집에서 나가는 장면, 지하철에 들어갈 때의 장면, 지하철을 타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 그 후 친구와 교실에서 논쟁하는 장면)이 들어간다.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하철 이야기: 기록 아래에 배치된 이야기

RG <i>아카이브의 기록</i>	시퀀스(Sequence) <i>개인의 이야기</i>
지하철 기록	S1 : 철이. 은하철도 999 S2 : 덕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S3 : 안개. 발바닥 행동과 세계관의 확장 S4 : 작가. 별천지 S5 ~ S7 : 미도파, 황새, etc (이야기는 생략)

도시에 지하철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나들이를 했다. 모험심이 많았던 청소년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김정호 놀이를 했다. 이렇게 삶이 전개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지하철 기록은 그런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듯 아카이브의 보존서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카이브가 지하철 기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그 기록을 읽은 시민들도 자신들이 겪은 지하철 이야기를 꺼냈다.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개인의 기억이 공공기록을 만나 이야기로 변신했다. 물론 공공기록이 없었어도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을 각자 꺼내봅시다’ 하는 식으로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려는 것은 아카이브가 그 일을 한다는 점이다.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 중에는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도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곳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가 기록을 제공하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의외로 개인의 삶과 아카이브의 공공기록은 궁합이 잘 맞았다. 지하철 기록은 각자의 삶에서 전개된 지하철 사건을 아카이브로 데려왔다. 아카이브의 기록은 n개의 개인의 이야기를 증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3) 이야기 공연의 몇 장면

#### (1) 안부

안부는 아카이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데 필요하다. 안부는 악수, 산책, 노크, 목례처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일상의 의례이다. 다만, 이곳은 아카이브이고 기록의 이유로 만났으니, 고민해볼 것은 기록의 특징이 드러나는 안부의 형식일 것이다. 이번에는 시 한 편과 엮서 분량의 편지였다. 사람들은 글을 써와서는 소리 내어 낭독하고는 상호간에 소감을 나누는 형식으로 안부를 나누었다. 기록이 있으면 안부를 나누는 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취지가 이 형식에는 들어 있다. 나아가 기록이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도 들어 있다. 매번 모임마다 1~2명씩 하게 되면,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 모두 안부를 전할 수 있다. 다채로움도 있다. 예를 들어 일곱 명이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일곱 편의 시가 들어간 일곱 편의 편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시들이 그렇게 마음에 꼭 박히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자각하게 된다. 그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나 하는 의문도 찾아든다. 참가자들은 매번 편지의 수신자가 된다. 편지는 수신자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전한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것이다. 단지 이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잘 지내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 반갑게 맞아줄 때 경이를 느낀다고 한다. 낯모르는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오며 존재로 다가오는 일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가 이병률 시인의 '이구아수 폭포 가는 방법'이라는 시가 들어 있는 편지를 써왔다. 시 속의 화자는 가끔씩 사라졌다. 그 사람은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저녁 내내 그곳에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안부를 전해줄 것이라는 희

망.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랐어요>. 이런 안부를 기다렸다. 안부는 사람들을 조금 고상하게 만든다. 비록 순간이지만, 사람들은 이때만큼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카이브에 왜 가는가? 아카이브를 찾아가는 이유에는 안부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야기 하는 장소로서 아카이브를 이해한다면, 이런 아카이브에서 안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공공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는 낯선 직업적 경험이 될 수 있다. 공공아카이브를 방문해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는 낯선 기록경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람실에서 안부를 발견하기는 힘들다(열람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안부를 나누는 장면), 전시실에서도 안부를 만나기 힘들다(전시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안부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 현재의 공공아카이브의 서비스 공간에서 안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야기 작업에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야기 작업을 하려면 안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필자는 다년간 이야기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야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깊은 것에 대한 촉발일 뿐이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타인을 자기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안부를 나눌 때의 기쁨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어봐줄 때 비로소 인간답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환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건 피상적이다. 오히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살 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고상한 존재를 갈망한다는 것을, 이야기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안부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은 이야기를 할 때 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식을 이야기의 도입부로 삼았다.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작업을 할 때도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안부를 이야기 도입부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2) 낭독

낭독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낭독은 “선별 → 목독 →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우들이 디근자로 모여 앉은 가운데에 탁자가 있었다. 탁자에는 지하철 기록이 놓여 있었다. 첫 날, 서울기록원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아카이브는 어떤 곳인지, 아카이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고, 이번에 읽어야 할 기록은 어떤 기록인지, 읽을 때는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대략 감이 잡혔다. 그러자 배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탁자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으로 기록을 세심히 만졌다. 어떤 페이지는 유심히 읽어 내려갔다. 옆 사람과 간단하게 의견교환도 했다. 여기서 목표는 각자 읽을 기록을 선별하는 것이었다. 각자 자신의 관심사 또는 그 순간의 알 수 없는 흥미가 선별의 기준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선별된 기록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무섭게, 격렬하게 목독하기 시작했다. 잡념 없이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갔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때는 경쟁적 자아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은근한 대화로 압박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조연(연구자)이다. 조연은 목독하는 주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조연은 질문을 던지는 자라고 했다. 조연은 묻는다 : 어떤 기록을 선별했는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가. 혹시 다른 배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며 때로 같이 찾는다). 조연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읽기에 개입했

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돌아왔다.

이제 무엇이 남았나. 한 사람씩 연단으로 갔다. 그들은 마이크를 자기 신체에 맞추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낭독을 시작했다.

〈낭독된 기록〉 (\*건 전체를 읽지 않고, 그 중의 일부만 읽음)

- 지하철 1호선 시공에 따른 보상협의
- 상계동 미도파 백화점 신축에 따른 인구 및 교통영향 평가(요약보고서)
- 도시계획 시설(철도 정류장) 결정에 따른 보완서류
- 구로 및 구룡 전차역과 전차기지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의뢰
- 서울 도시계획시설 결정 노선도면 송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록에서는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부분이 낭독되었다. 공공개발로 인해 땅을 수용 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도 읽혀졌다. 낭독의 대명사인 시와 소설에 못지않은 흥분이 실내에 감돌았다. 의외의 일이었다. 지하철 건설의 그 무미건조한 행정에도 낭독의 즐거움이 있었다.

낭독은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는 권유이다. 여기서 낭독을 말하면서 기록읽기에 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기록만 낭독하지는 않았다. 참가한 사람들 스스로 써온 기록도 낭독했다. 순서상, 처음에는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기록을 읽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 번에 걸쳐 참가자들이 써온 기록을 읽었다. 2장 2절의 ‘지하철 이야기’는 참가자들이 써온 기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써온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했다. 어떤 기록이든 낭독은 사람들을 한 순간에 몰입시킨다.

묵독은 혼자만의 읽기이고, 소유하는 읽기이고, 자기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소외의 읽기이다(성찰에 대한 측면은 제외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집단의 읽기이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읽기이고, 함께 공유하면서 뭔가를 발생시키는 읽기이다. 일곱 명의 사람들, 그들은 피차 잘 모르는 사이이다. 이럴 때 낭독은 ‘서로 낯설고 잘 모른다는 것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기왕에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과감한 시도가 된다. 낭독은 이야기 공연에 필요한 극적 형식이 될 수 있다.

### (3) 대화

뭔가를 발생시키는 것은 언제나 대화이다. 낭독이 마무리 되면, 질문의 역할을 맡은 조연이 조용히 무대로 걸어 나온다. 조연은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주연들에게 한 사람씩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들었는지, 왜 그런 것인지, (...)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들었는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진솔하게 말한다. 그것은 낭독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자신에게 들어온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것이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날린다. 그들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날리는 낙엽에 대해서만 말하려 애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I’m not okay’의 심리상태가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충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태도와 목소리는 ‘you are not okay’의 반응이 된다(정혜신 2018). 그러나 이야기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you are okay’의 반응이다. 대화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대화를 나누며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서로 낯설고 잘 모른다는 것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기왕에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공유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된다. 질문에는 교차와 대조의 방식으로 분석적인 질문도 있다. 그것은 각각의 반응을 고립시키지 않고 상호 연결시켜 합창의 효과를 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대화

가 진행되다보면 때로 여러 사람이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화는 풍부해진다. 대화는 파도처럼 일던 감정을 진정시켜주며 수평선으로 전개되는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대화는 그 안에서 다른 캐릭터와 관점을 만나는 기회이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익숙하게 봐온 사물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대화는 프리즘이 되고, 사물에는 스펙트럼이 생긴다. 다양성과 상대성으로 시야가 확대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유의 증식으로 말할 수 있겠다.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는 힘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화는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증식시킨다.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공연이 갖는 의미는 자유의 증식에서 찾을 수 있다. 대화도 낭독처럼 이야기 공연에 필요한 극적 형식이 될 수 있다. 대화는 극적 전개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이상 2장에서는 읽기의 실행인 이야기 공연에 대해 서술했다. 주권의 관점에서 2장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들이 공공아카이브 안에서 기록을 읽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아카이브가 기록을 내놓자, 시민들도 이야기를 내놓았다. 공공아카이브는 기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의무의 집행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자신이 양도한 주권이 집행된 기록을 읽는 일이 시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야기는 아카이브와 시민 사이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중개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이 표현되는 시민적 행동에는 선거와 투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위와 집회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이 기록읽기 결사체(모임)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공공아카이브 안에서 집단적으로 기록을 읽고 이야기 공연을 하는 것도, 그들이 주권을 표현하는 시민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기록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공연에는 지하철 1호선 공사,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 지하철의 사회적 문제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있었다.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시민들의 주권적 행동은 읽기의 영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야기 공연은 기록을 읽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아카이브 안에서 기록관리에 충실한 상태에서 다루는 읽기방법에 속한다는 점이다.

### 3. 기록의 무대

#### 1) 이미지

##### (1) 기호론: 이미지와 이야기

이 글의 바탕에는 기호론이 있다. 아카이브 담론에서 기호론은, 아카이브가 보유한 기록이 특정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이런 이미지가 기억을 만든다는 점, 그래서 기록의 사회적 설득력을 높이려면 기호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조민지 2014(1), 조민지 2014(2), 이영남 외(2014)). 이 글은 기호론에서 특히 이미지에 주목했다. 기호론에서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의미적 심상이다.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를 찾느냐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를 방문해 기록도 읽고 이야기도 하면서 삶의 의미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카이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식한 후 행동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이런 서사적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아카이브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기록의 무대(archival theater)’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고, 교

환하고, 체화하는 곳이다. 그런데 공공기록관리법과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카이브의 관행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나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서 아카이브 이미지가 설 자리가 별로 없다. 아카이브는 이야기하는 장소라는 이미지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런 이미지의 부재는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삼아 이야기 작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만약 다른 곳이 아닌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야기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 중요해지는 것은 인간의 인식과 언어와 행동이 들어설 기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공간은 제도와 정책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야기의 관점에 설 경우, 제도와 정책보다는 이미지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은 제도와 정책으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카이브라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일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야기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아카이브는 이야기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 이미지에 걸 맞는 행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아카이브를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사자가 있는 평원의 이미지에는 먹이사슬, 적대적 경쟁, 적자생존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진화론이 들어 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세포의 이미지에는 이질적 존재들의 교류와 협력, 공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진화론이 들어 있다.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유전물질에는 DNA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작용,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담당한다. DNA는 모계와 부계를 통해 유전되는데 반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된다(린 마굴리스 2007). 새로운 진화론은 새로운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말하려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

기록의 무대에는 세 개의 이미지가 적용되었다. 첫째, 저녁 무렵 레테 강가의 이미지이다(3장 1절). 아카이브를 이야기하는 장소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이미지이다. 둘째, 시어의 이미지이다(3장 2절). 특히 무대의 구성 및 관객의 존재를 말하는 데에 필요한 이미지이다. 셋째, 카페-심야식당의 이미지이다(2장과 3장). 기록읽기를 진행할 때 음식으로 복부를 채우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야기 하는 장소로서 아카이브를 위해, ‘저녁 무렵 레테 강가’의 이미지부터 살펴본다.

## (2) 저녁 무렵 레테 강가

레테(Lethe, 망각)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강이다. 이승을 떠나는 망자들은 저녁 무렵 레테를 건너간다. 기억은 사람의 발뒤꿈치에 있다. 망자는 레테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의식을 통해 이승의 기억을 남김없이 강물에 떠나보낸다. 그러나 망자는 외롭지 않다. 망자의 기억을 관리하는 신들과 그 기억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억을 관리하는 신은 므네모시네(Mnemosyne)이다. 그녀와 제우스 사이에는 아홉 명의 딸이 있었다. 이들은 무사(Mousa, 영어로는 뮤즈)로 불렸다. 무사들은 저녁 강가에서 거닐었다. 한편, 망자의 기억으로 이야기를 제작하는 시인도 저녁 무렵의 레테를 찾는다. 므네모시네는 환대를 베풀어 시인에게 강가에 있는 샘으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한다. 샘물에는 망자들의 기억이 들어있다. 시인은 샘물을 마시며 망자의 기억을 상기한다. 망자의 기억은 이야기를 통해 나온다. 결국 이야기는 므네모시네의 가호 아래, 시인과 무사의 협력작업에 나온다. 무사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의 형식(이야기의 형식)을 시인에게 알려준다. 무사(Mousa)의 이런 기술(-ike)은 무시케(Mousike)로 불렸다. 무사는 이야기 기술인 무시케를 사용하며 시인들과 협업한

다. 시인들과 무사들은 그렇게 레테 강가에서 망자의 기억을 산 자를 위한 이야기로 변신시킨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시인들의 행보가 중요하다. 시인들은 이야기를 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 인간의 진실했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준다(김현 2022, 베티 본햄 라이스 2007, 이반 일리치 2016b, 이반 일리치 2020).

레테 이미지에서 기억이 발뒤꿈치에 들어 있다는 설정이 참 인상적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는 기억은 결국 자기가 발바닥을 짚으며 행동했던 것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장 3절의 지하철 이야기의 '안개'도 그런 기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기억의 관리방식도 인상적이다. 관리자-위탁자의 1:1 단발성 관계가 아니라는 점, 기억화 방식이 음반을 리플레이 하듯이 그대로 재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흥미가 생긴다. 기억의 관리자는 다르게 행동했다. 관리자는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인을 초대하거나, 또는 방문을 허용했다. 딸들인 무사들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다. 환대를 받았던 시인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 무사는 상호 협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레테에서 제작된 이야기는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고, 유통되면서 기억되었다. 기억이 보존되는 방식은 이랬다. 그것은 그들이 기억의 특정한 이미지(저녁 무렵 레테)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를 하려면,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저녁 무렵 레테'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살펴보았다. 그렇긴 하나, 고대 지중해 세계의 신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현재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면 대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조를 사용했다. <레테 강가(므네모시네)는 아카이브로, 무사들은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무사의 기술-능력인 무시케는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로, 시인은 아카이브 방문하는 다양

한 사람들로, 그리고 샘은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열람실, 전시실, 데스크, 카페, 교육실 등)로, 망각은 고립된 기억,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주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교환할 수 없는 상태의 기억으로, 또는 타인의 인정과 지지가 없는 기억으로) 전환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저녁 무렵 일단의 시민들이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이야기 작업을 하려고 하자,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환대하며 기록의 무대로 데려간다.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카이브를 방문한 시민들과 어울려 협업하며 이야기 작업을 수행한다. 그렇게 아카이브에서 기록이 중개한 이야기가 제작되면,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유통시킨다. 이때 기록관리는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무시케이다. 무시케는 효율적 기록관리를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로 변신시킨다.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장 2절에서 상술). 아카이브에서 제작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고 유통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로 하는 기억이 된다. 아카이브와 아카이브의 기록도 의미적 심상이 되어 시민들의 이야기와 섞인 채 사람들 삶에서 보존된다.

아카이브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야기 작업을 다루는 데 있어 의식적으로 고려할 점은 이야기를 기록관리상의 수집전략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보존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다. 기록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온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꺼내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꺼낸다. 기록과 이야기의 교환에 주목할 때 아카이브는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서비스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전에 수집하여 보존서고에 두지 않고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공공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이야기 작업과 무관하게 수집된 기록이다. 그렇긴 하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야기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기록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아카이브에서 '수집에 대한 본능적 감각'으로 이야기를 주요 수집대상으로 삼는 수집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긴 하나 그것을 전제로까지 둘 필요는 없다. 적어도 이야기 작업에서는 수집이 서비스의 전제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기록관리상의 어떤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면, 서비스 전략으로 삼아 직접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공간 구성

### (1) 시어터

기록읽기는 아카이브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 직접적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기의 아카이브 전략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직접적 서비스가 함께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조민지 2020, 이영남 외 2020). 이 글에서는 직접적 서비스를 시어터의 이미지 안에서 사람들이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반응하면서 친밀함을 키우는 것, 그래서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필요에 적용했다.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아카이브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사물과 세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직접적 서비스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때 서로를 존중하는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이 잘 되면,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면으로 가깝게 대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연극, 뮤지컬, 영화, TV 드라마는 배우들이 대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공연이다. 그런데 아카이브에서 뮤지컬을 바라볼 때, 뮤지컬의 음악과 춤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는 스크린으로 상연이 된다는 점 때문에 직접적 접촉은 될 수가 없었다. 반면, 연극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집단작업이고, 배우와 관객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관객의 반응이 극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에 적합한 이야기 형식이다. 물론 아카이브는 연극무대가 아니다. 따라서 연극무대도 아닌 아카이브에서 연극을 극 형식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극을 모티브로 삼되,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작업을 하는 데에, 그리고 기록읽기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기록의 무대는 여기에서 나왔다. 기록의 무대는 연극을 모티브로 삼은 아카이브의 이야기 형식이며, 이런 이야기 공연은 직접적 서비스의 일환이다.

시어터(theater)는 고대 그리스 연극의 야외극장에서 관객들이 모여 앉아 관람하던 계단식 공간인 테아트론(theatron, viewing place, gathering place)에서 파생했다. 관객들은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산허리에서 배우들과 합창단이 협연하는 연극을 보았다. 이런 관행에서 테아트론이 형성되었다. 영어권에서 시어터는 일반적으로 “공연, 동시에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를 뜻하지만, 이 말의 적용범위는 의외로 넓다. “극장, 관객, 극문학/극작품/희곡, 극적 효과, 장면” 등으로 공연예술의 예술적 작업 전체를 포괄한다. 나아가 시어터는 연극, 무용, 영화 등의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강연장의 사건(강연), 수술실의 사건(수술) 등에도 적용된다(김석만 2001. 김현 2022. 오스카 G. 브로케트 2014). 결국 시어터는 사람들이 눈 여겨보는 것, 그 시선이 닿아 의미가 생기는 사건,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서 상기되는 기억, 그 기억의 의미화 등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연기하며 사는 존재이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스스로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초기에 이미 형성된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연기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연극에는 연기한다는 측면과 그 연기를 본다는 측면이 동시에 들어 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배우의 연기와 관객의 반응이 만나는 순간이 연극에서는 핵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보는 장소를 뜻하는 테아트론에는 보다(theomai, 테아오마이)라는 동사가 들어 있다. 시어터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누군가를(무언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몰입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을 즐기는 순간이자 장소이다. 배우의 연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연기를 과연 누가 보는가, 어떤 이유로 보느냐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기 그 자체가 아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관객이 되어 지켜보는 것이다. 친밀한 보호자의 응시를 받으며 아이들은 자신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체화한다. 시어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순간이자 장소이다. 누가 보느냐, 어떤 이유로 보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 (2) 관객의 역할과 의미

기록읽기 모임은 서울기록원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이 공간은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었다. 공간의 전면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앉아 기록도 읽고 이야기도 교환했다. 그 장면을 응시하는 곳은 공간의 후면에 위치했다. 그 사이에 제3의 공간이 하나 있었다. 이 공간은 축구경기장에서 그라운드와 관람객 사이에 있는 벤치와 유사했다. 축구 경기장의 벤치에는 감독, 코치진, 의료진, 후보 선수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관중들과 함께 운동장에 온 신경을 쓰지만 목적

과 기능은 다르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다치면 의료진은 뛰어 들어가 치료를 한다. 후보 선수는 적절한 때에 교체되어 들어가 경기에 활력을 넣는다. 서울기록원 3층 교육장의 벤치도 마찬가지였다. 스태프는 적절한 때에 무대에 개입했다.

서울기록원 기록읽기 모임의 기획팀은 준비단계에서는 단일한 회의체였다.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기록읽기 모임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마치 세포가 분열되며 성장하듯이, 기획팀은 관객(서울기록원), 스태프(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배우(연구자)로 나뉘었다. 존재는 그 존재에 필요한 공간을 창조한다. 관객은 객석을, 스태프는 벤치를, 배우는 공연하는 무대를 각각 창조했다. 존재는 자신이 창조한 공간에서 활동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존재가 되며, 나아가 그 공간마저도 특별한 지위의 장소로 변신시킨다.

기록읽기 모임에서 읽기를 보기로 전환시킨 것은 서울기록원이었다. 서울기록원은 밤마다 관객의 자리로 이동했다. 서울기록원이 관객이 되어서 읽는 장면은 보는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거의 모든 것이 변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과 관객의 자리에 앉은 아카이브 사이에서 특이한 교감이 생겼다. 그 교감을 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 아카이브는 시민들에게 아카이브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좋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당신들은 아카이브를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이런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서울기록원은 기록읽기 모임이 진행되는 내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첫째, 시설을 제공하고 방문한 사람들을 환대했다. 둘째, 서울지하철 1호선 기록을 기록의 무대에 극적 장치로 배치했다. 셋째, 관객의 자리에서 관객이 되어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에 극적인 반응을 했다. 배우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관객의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물

론 그런 상황에서도 전업배우들은 공연을 이어간다. 그러나 시민들이 아카이브에서 이야기 공연을 할 때 관객의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번의 공연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관객의 반응은 절대적이다. 기록의 무대는 아카이브가 관객이 될 때 실현된다.

관객에 대한 언급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아카이브에서 직접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에서, 결국 핵심은 아카이브가 관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객이 되는 것은 아카이브의 새로운 존재성이자 사회적 역할이다. 아카이브는 공급자로만 자신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아카이브에도 유희의 관점도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 설 때,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이야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아카이브는 기록의 공급자라는 의무에만 자신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아카이브도 수요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유희의 대상일 수 있다. 유희의 첫 걸음은 관객이 되는 것이다.

2장과 3장의 바탕에는 사건론도 있다. 아카이브 분야에서 사건론은 사건의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건 아카이브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 관리하려는 시도이다(임지훈 등 2017, 임지훈 2019). 4·16 참사 아카이빙은 사건 아카이브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사건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있다. 그래서 사건 아카이브는 관료제 기반의 아카이브와 비교할 때 정서적인 차이가 크다. 구술언어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에서 언어와 정서는 매뉴얼에 갇힐 수 없다. 사건론은 현대철학의 논의를 수용하여 비가시적인 사건에 대한 접근에서 언어의 의미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사건론의 기초를 수용하면서도, 사건의 시선을 아카이브 내부로 돌렸다. 그렇다면, 아카이브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없는가. 아카이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면, 사회에 발신하는 일도 아카이브의 일이지

않을까 하는 논리에 적용했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는 아카이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2장과 3장은 이 사건을 사회에 발신하기 위한 서술이다.

## 4. 기록읽기의 특징과 의미

### 1) 계층적 읽기

#### (1) 계층관리로부터

첫 날 장면에서 기록읽기의 특징을 잡아본다. 이 날, 어떤 기록을 읽을지,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어떤 기록을 읽을지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1호선 기록을 읽는다는 설명이 서울기록원으로부터 있었다. 흥미를 자아냈다.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읽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읽을지가 관건이었다. 한글로 작성된 1970년대 기록인데, 그냥 읽으면 되지, 무슨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하는 의문이 무대를 압도했다. 그러나 아카이브에 왔으면 아카이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아카이브에서 관리되는 상태의 기록을 만나야 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우들은 1미터 앞에 보이는 기록을 보고서는 그것을 읽고 싶다는 격렬한 충동으로 좌불안석이었다. 야밤에 아카이브에 굳이 온 이유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체할 이유는 뭔가. 그들은 흡사 목줄에 매여 사납게 으르렁 거리는 사냥개 같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진정해야 했다. 10분, 그리고 다시 또 10분, 시간은 하찮게 흘러가야 했다.

두 개의 교재가 배포되었다. 먼저 교재 A는 <아카이브 기술서>(아카이

브에서 제공한 기록기술서의 약자. A4 출력물 10페이지 분량)였다. 아카이브 기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 앞부분은 아카이브에서 작업하는 기록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2페이지 분량). 여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도 조금 들어가 있었다. 특히 강조했던 것은 계층기술이었다. 뒷부분은 사례인데, 사례로 삼은 것은 뉴욕 스톤 브룩(Stony Brook) 주립대학의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Herstory Writers Workshop Collection*의 컬렉션 기술서(요약 번역본. 8페이지 분량)였다. 산문체로 작성된 기술서였다. 4개의 목차로 구성되었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서 읽기가 수월했다. 1장 서문에는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어떻게 수집했는가가 기술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기증에 관한 내용(언제, 어떻게, 의미)이었다. 기록은 그렇게 아카이브에 등장했다. 2장 단체의 역사에는 해당 기록을 생산하고 기증한 단체에 대한 역사가 간간히 기술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시선이 교차했다. 설립자의 시선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시선과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시선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다. 3장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에는 시기, 분량, 종류 등이 기술되어 있었다. 4장 컬렉션 시리즈에는 9개 시리즈의 제목과 그 하위의 파일의 제목이 기술되어 있었다.

왜 굳이 〈아카이브 기술서〉를 내세워, 계층기술을 알아야 기록을 안다는 바람을 잡았을까.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 기차는 계층기술의 선로에서 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설명하는 사람은 궤도를 이탈하면 큰 일이 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물론 아카이브에서 행하는 직원교육도 아니고 시험의 강제가 있는 대학의 강의시간도 아닌 바에야 어차피 불가능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기록읽기 기차는 궤도를 이탈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꼭 성공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기억에 인간은 더 깊은 애착심을 갖는다.

궤도를 이탈한 기차, 그 실패의 기술서 읽기에는 하나의 잔상이 생긴

다.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계층기술을 읽었다.” 아카이브에서 의식적으로 기술서를 읽었다는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 앉아 의미적 심상이 된다. 이런 이미지에는 몇 개의 문장이 질서정연하게 들어 있다. <그런 것이다. 기록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어딘가에서 일하면서 그 필요로 생산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카이브에 입장하면 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의 계층적 구조로 관리된다. 아카이브에서 기록 읽기의 통로는 계층관리에 있다>. 기록읽기 특징은 아카이브 기술서를 단서로 삼아야 한다(교재 B는 <목적자의 진술서>(A4 출력물 11페이지 분량)인데, 설명을 생략한다).

아카이브는 읽기의 공간이다. 역사가들도 기록을 읽고 다큐멘타리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읽는다.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도 기록을 신청해 읽는다. 수사기관도 기록을 읽고 업무담당자들도 기록을 읽는다.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록을 읽는다. 단지 기록을 읽고 싶다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아카이브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다(이글의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읽는다. 오늘도 읽기의 공간에서는 다종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읽기를 촉진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필요를 걷어낸다면, 그런 읽기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겨울논이 봄부터 가을까지 인간의 노동과 작물과 잡초와 논생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가만히 말해주는 것처럼, 아카이브에도 읽기의 공통적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공통적 특징을 찾으려면, 아카이브에서 기록이 존재하는 그 특유의 존재방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계층관리라는 특유의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한다. 평가를 거쳐 대량의 기록을 수집한 후 분류와 정리기술을 하는 과정에서 계층관리는 정립된다. 왜 그래야 하는가? 기록관리상의 논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룰 이유는 없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하나이다. 그것은 아카이브가 기록

읽기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 계층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카이브에서 보고자 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계층적 읽기’라는 아카이브 특유의 읽기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계층적 읽기의 반복이다. 이 글의 2장과 3장에서 다룬 것도 계층적 읽기에서 발생한 에피소드였다.

## (2) 아카이브의 고유한 읽기

계층적 읽기는 〈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의 계층구조를 위아래로 왕복하며 읽는 것이다. 기록을 보고 인식하는 시선에는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시선과 바닥으로부터 천장을 향해 상승하는 시선이 있다. 일부 예외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카이브를 방문해 기록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기록은 계층관리를 받는 기록이다. 아카이브 바깥에서는 기록이 꼭 계층적으로 관리되진 않는다. 계층관리는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계층관리는 아카이브에서 대량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자신의 필요로 인해 역사적으로 도출한 방식이다. 아카이브가 아닌 곳에서는 기록이 존재하는 방식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렇긴 하나, 일단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를 하려면 계층적 읽기를 존중해야 한다.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대목은 아카이브의 고유한 읽기이다. 계층적 읽기는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를 수행하면서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기록일 때만 가능한, 아카이브의 고유한 읽기이다.

아카이브 바깥에서도 매일 기록이 읽혀진다. 예를 들어, 연주자는 악보를 읽고 해석하며 연주를 한다. 그러나 연주자의 악보 읽기는 계층적 읽기는 아니다. 연주자는 계층적 읽기를 하지 않아도 연주를 할 수 있다. 연주자의 연주를 즐기기 위해 연주장에 들어간 관객도 읽기를 한

다. 관객은 팸플릿을 읽고 연주에 빠져들지만, 그런 심오한 순간에도 계층적 읽기는 없다. 나중에 아카이브에서 그 연주에 관한 기록들이 속속 수집되어 계층적으로 관리된다면, 비록 동일한 기록이더라도 그때 비로소 계층적 읽기가 시작된다.

물론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열람실의 관행적 읽기에서 보면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계층적 읽기가 발생하지 않아 보인다. 검색은 계층적 읽기를 무시한다. 분류체계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는 드물다. 열람실에 진득하게 앉아 RG/Collection 단위로 기록을 통으로 읽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만약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람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나누자, 검색은 여기 사정을 잘 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대신 기록을 통으로 가져다주겠다, 아카이브가 단단히 질서를 잡아놨으니, 당신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는 기록의 숲에서 몇 날 며칠이고 거닐며 시간의 유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통으로 읽는 계층적 읽기를 권하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보자고 한다면, 일부 역사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불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몇 페이지 분량만 읽어도 될 것을 몇 백페이지 분량을 통으로 읽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인식의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비록 극히 일부의 읽기라고 해도 계층관리의 원칙이 구현된 것이라는 논점이다. 열람실 이용자에게 단지 몇 페이지 분량의 건 하나만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열람실의 고요한 침묵에서 몇 페이지가 출력되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계층관리에서 나간 기록이다. 벽돌 한 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런가 묻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브레히트의 시, 모토).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다. 비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해보일 수 있지만, 불완전함, 또는 불안정성은 사물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세 수도원의 기록읽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작은 것들에 터를 잡으면 모든 걸 얻으려 애써도 무방하다.’(이반 일리치 2016a). 사물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다면, 한 건의 기록을 읽는 것에서 계층적 읽기를 찾지 못한다면, 계층적 읽기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시선을 시민들에게 돌릴 경우, 시민들은 오히려 계층적 읽기를 통로로 삼아 기록관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시민들과 기록관리 절차에 따른 아카이브 워크숍을 몇 번 수행한 바가 있었다(이영남 2012, 이영남 2022). 여기에서 기록관리 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평가-분류-정리와 기술-서고배치의 경로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해당 단체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단체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했다. 그것은 시종일관 계층적 읽기의 반복이었다. 인벤토리를 작성하면서 → 분류체계를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 물리적인 정리를 하면서 → 계층기술을 하면서, 그들은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가능한 계층적 읽기를 실천한다. 계층적 읽기를 할수록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달라짐을 느낀다. 계층적 읽기는 기록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상대화해서 관찰하는 시도라는 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의 시간이 유효적으로 흘러 기록관리가 진척되면 될수록 계층적 읽기도 발달한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특징적 방식은 계층관리이다.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계층관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계층관리만을 강조하다보면 상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좌우의 문제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위험성도 생긴다. 결국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의 방향성은 상하좌우의 맥락을 두루 살피는 것일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록 속에 담긴 이야기나 활동의 맥락을 보다 온전히 담기 위한 노력으

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계층관리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상하 관계 이외의 기록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할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계층적 읽기도 ‘맥락과 함께 기록읽기’라는 광의의 공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계층적 읽기에만 한정했다.

계층적 읽기는 원래 기록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근접해 있다. 아카이브는 자신이 만든 원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물론 아카이브의 기록읽기는 계층적 구조로 관리되는 기록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긴 역사적 안목과 시민의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현실은 역사상의 특정 시기에 출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효율적 기록관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기록관리는 다른 성격의 기록관리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천이 필요하다.

## 2) 기록의례와 관계지향의 기록관리

### (1) RG로부터

의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한 대학생이 4·16 기억저장소를 방문해야 했다. 아카이브를 탐방한 후에 보고서를 써야 하는 과제를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길바닥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발견했다. 학생은 순간 움찔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져갈까, 그냥 지나쳐야 하나, 아니 주워서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길을 막아섰다. 평소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4·16이라는 엄청난

난 사건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과제를 하는 길이었다면 시간에 쫓긴 나머지 평소처럼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에 가는 그 날은 그럴 수 없었다. 윤리적 충동에 이끌려 그 학생은 카드를 주운 후 일부러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자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과제에 들어간 시간은 더 늘어났다. 예상한 시간보다 더 시간이 걸린 비효율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4·16 기억교실을 돌아볼 때 반전이 생겼다. 그곳에서 찬찬히 기록을 읽을 때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며, 자신이 왜 아카이브를 굳이 방문해야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내심 뿌듯해졌다.

이 경우 아카이브라는 존재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첫째, 그것은 4·16 사건 때문이지 아카이브 때문은 아니지 않겠냐는 반론이다. 그러나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하지 않을까. 아카이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4·16 사건은 어디에 있는가? 4·16 사건은 아카이브에 있다. 아카이브를 공동여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 그것은 4·16 아카이브 같은 사건 아카이브의 특수한 상황이다, 일반화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은 공공기록관리법과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다수 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는 윤리적 맥락이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을 일부러 폄하하면 곤란하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미 직업윤리를 말한 바도 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된 기록읽기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의 지하철 이야기를 상기해보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단순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상응하는 반응을 보인다. 상호주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된다. 윤리를 제공하면 윤리가 돌아온다. 서울기록원의 이번 행

동은 좋은 예가 된다. 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을 환대했다. 시민들은 그 환대의 분위기에서 상호간에 안부를 나눌 수 있었다. 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다정하게 안부를 나누는 모습에서 자신이 행한 환대가 돌아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아카이브에는 윤리적 힘이 작용한다.

환대와 안부는 윤리적 힘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관계적 가치이다. 지하철 이야기의 속사정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이다. 존재를 관계에 두며, 윤리가 생긴다. 이야기는 자신을 윤리적 존재로 이해하려는 실천이다. 윤리적 고민은 단순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며(right),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good) 하는 것이다(피터 싱어 2013, 피터 싱어 2014). 이 글에서 RG는 기록관리상의 Records Group이자 윤리적 고민의 요체인 Right & Good이다.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작용했다. 계층관리에서 RG는 최종적인 지위를 갖는다. 인간의 삶에서 윤리적 충동(Right & Good)도 최종적인 지위에 있다. 윤리적 고민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집단적으로 추구할 때 평등 같은 사회적 정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는 계층적 읽기였다. 그 계층적 읽기는 RG가 통솔하는 질서정연한 기록을 통으로 읽는 것이다. 인간의 이야기도 RG(윤리적 충동)가 통솔한다. 지하철 이야기에서는 자기를 과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진지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지하철 이야기에서 ‘철이’는 은하철도 999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 아들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고민했다. ‘딕후’는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당한 죽음의 사건(10.29 참사) 앞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관찰하며 시민의 역할을 기록했다. ‘안개’는 발바닥 행동과 세계관의 확장 이야기에서 좋은 삶을 세계관의 확장으로 이해하되 그것은 자신이 발

바닥을 찍고 다닌 곳에서 만난 것들과의 만남과 교류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작가’는 별천지 이야기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지하철을 이야기하며 시민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했다.

물론 〈철이-덕후-안개-작가〉는 아카이브가 아니어도 다른 이야기 작업장에서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필연만이 의미를 낳는 것은 아니다. 우연에서 나오는 것들도 의미를 구성한다. 우연한 만남은 이번엔 RG의 계층적 읽기에서 출현했다. 만약 아카이브에서 지하철 기록을 RG의 계층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아카이브의 특정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 명의 시민들이 아카이브의 어떤 곳에 자리를 잡아 공공기록을 읽으며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정치적 이야기를 했다. 아카이브는 기록관리를 하면서도 이야기 작업과 파드되를 했다. 여기에 윤리적 충동이 가세했다. 아카이브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의 장소이기도 하다.

## (2) RG의 윤리적 계열

윤리와 의례는 뼈와 살의 관계처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의례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 반복되는 행동’이다. 기록관리도 절차에 따라 반복되는 인간의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기록관리도 사회적 의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기록관리를 사회적 의례로 이해한다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록관리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동사(verb)이다. 기록관리를 하면서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를 주목하고 여기에서 의미를 탐구해보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아카이브가 사회에 제공하는 기록 앞에는 managing, archiving, keeping 등의 동사가 있다. 그런데 기록읽기 모임에서는 새로운 동사가 하나 추가되었다. 그것은 storytelling이었다. 서울기록원은 당시 기록만 제공했

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기록원은 시민들과 만나자 환대라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 이야기 공연이 시작될 때는 관객이 되었다. 환대하는 것, 관객이 되는 것은 현재의 효율적 기록관리에는 들어 있지 않다. <환대하다, 관객이 되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서울기록원이 동사를 제공했던 것은 자리의 특별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 자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야기를 하는 자리, 또는 스토리텔링의 자리였다. 새로운 장소에서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아카이브는 managing, archiving, keeping의 동사로 기록관리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storytelling이었다. 스토리텔링은 마을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등의 ‘변방의 아카이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동사이다. ‘변방의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아카이브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스토리텔링이라는 동사가 등장한다. 구술도 스토리텔링의 일환이다.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방의 아카이브’는 태생부터 인간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익숙한 행동인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아카이브의 동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공기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한 아카이브에서 전개된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도 스토리텔링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아래의 도표는 언어적 관점에서 계층관리를 살펴본 것이다. 논의를 이어가는 데에 필요하다.

〈기록관리와 기록의례가 함께 들어가는 계층관리〉

	계층관리	제공/공유	언어적 성격	의미
RG	기록관리 : series - files - items	기록	명사/사물	정보적 가치
	기록의례 : mask - theater - scenes	의례	동사/행위	관계적 가치

의례는 인간의 행동에 규칙을 주어 반복하게 한다. 집단이 함께 행동을 할 때 특히 의례는 중요하다. 의례에 따라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을

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예배는 종교의례이다.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종교의례에 따르게 된다. 기록의례(archival ritual)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기록의례는 기록을 다루는 일에서 반복되는 행동이다. 이번에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도 일정한 기록의례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 이야기 작업은 아카이브 안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록의례에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층관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표는 그것을 상기시킨다. 계층관리의 기록의례에서 mask(마스크)는 managing, archiving, storytelling, keeping의 앞 글자를 이용해 만들었다. 동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동사에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록관리는 결과물인 기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동사도 중요한데, 그 동사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기록관리의 요청사항이다. 물론 기록관리 방법론, 기술, 지식 등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행동을 규율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것은 아카이브가 서비스 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사물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간의 행위도 제공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mask(마스크)는 연극에서 가면의 뜻으로 사용된다. 동시에 역할의 뜻도 지닌다. 연극은 가면을 쓴 배우들이 이야기상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서 가면은 허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의 형식이다. 이야기에서 진실은 역할을 충분히 연기할 때 표현된다. 아카이브에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의 진실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진실에 닿을 수 있

을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진실의 형식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록읽기 모임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진실한 역할에 대한 고민의 일단이 있었다. 기록의례에서 “theater(기록의 무대)-scenes(이야기 공연의 장면들)”은 3장과 2장에서 서술하여, 여기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는다.

위의 도표에서 RG의 두 계열을 말하면서 기록관리와 기록의례로 구분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부의 기록관리와 외부로 발신하는 기록관리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구분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기록관리에 대한 반성과 비판 때문이다. 기록관리는 아카이브의 담론이다. 여기서 벗어나기보다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내부의 기록관리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기록관리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록관리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부로 발신하는 기록관리는 이런 맥락이다. 이 글에서는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로 보고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는 관료제 기반의 기록관리로부터 출발했다. 관료제 기반의 기록관리는 효율적 기록관리를 표방한다. 그러나 효율은 기록관리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기술이지 기록관리의 성격과 지향을 규정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효율을 가치로 이해한다면, 그런 효율적 기록관리의 틀에서는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른 계열의 기록관리이다. 여러 대안적 시도 중에서 이 글은 관계론의 입장에서 서 있다. 관계론의 시선에 서면, 성격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달라진다. 효율적이라는 형용사 대신 관계성을 드러내는 말들이 배치된다. 관계형(이연창 2022), 관계성 기반(이영남 외 2020), 우애(조은성 2013), 동무(이영남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논의의 연장선장에서 기록의례를 서술하며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로 의미를 짚어보았다.

의미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사회적 형식에서 반복된 행동으로도 표현된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의 의미를 섬뚱게 할 것이다. 그러나 포옹, 키스, 산책 같은 형식에서의 반복된 행동도 사랑의 의미를 지속시킨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들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려는 경향성이 있다. 특정한 사회적 형식에서 반복된 행동은 루틴이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도이다.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형식은 의례에 해당한다. 기록읽기의 의미도 기록의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관계지향의 기록관리는 관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록의례를 찾는 노력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를 하면 할수록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관계적 가치(이 글에서는 환대, 안부, 이야기를 다루었다)가 증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의 서비스는 시민들과 만나 교류하며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관계이다. 공적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기록을 제공하는냐보다는, 어떤 사회적 형식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록의례를 찾는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를 하는 날,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동사가 아카이브에 입장했다. 그리고는 종전의 세 동사와 스스럼없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기록관리와 이야기 작업은 파드되를 추었다.

## 5. 결론

공공아카이브(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적용 대상)는 기록이라는 진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회적 설득력은 상당히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지중해 신화에 등장하는 카산드라가 처했던 상황과 닮았다. 카산드라(Kassandra)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녀는 트로이 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경고했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감금되었다. 전쟁의 와중에는 트로이 목마 안에 적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때 트로이 사람들은 오히려 적국인 그리스 사람 시논의 전략적 거짓말에 이끌려 목마를 성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축제를 벌였다. 진실에 귀 막은 대가는 혹독했다.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에서 나온 병사들과 숨어 있다 합류한 병사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트로이라는 당대 최대의 도시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카산드라도 신전에 있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 미케네로 끌려가야 했다. 미케네 궁전 앞에서 그녀는 다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가멤논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고서 아가멤논에게 진실을 알렸다. 역시 목살되었다. 결국 그녀는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쓸쓸히 말하며 죽음으로 걸어갔다(김현 2022. 베티 본햄 라이스 2007).

진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설득력이 없었던 자에게는 가혹한 운명이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는 사회적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공공기록관리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양의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공간과 시설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기록과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설득력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공아카이브는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아카이브로 성장했다. 공공기록관리는 행정에 간헐했다. 관료제의 정서와 언어, 행정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4·16 사건의 진실에 국가기록원은 어떤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4·16 기억저장소의 사회적 설득력에 비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기록을 통해 진실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건-지역-문화-예술-역사(시민단체, 지역단체, 도서관, 미술관, 문화원, 박물관 등)에서 시도하는 아카이빙에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 여기서는 기록을 앞에 두고서 나누는 말이 번역 없

이도 서로 통한다.

제도혁신, 전문성의 향상, 대량의 기록수집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 기록원 기록읽기 모임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서울기록원 첫 방문. 은평구 주민으로서 혁신파크에 운동하러 종종 왔다. 하지만 서울기록원 건물을 바라보기만 했지 방문 할 엄두를 낼 순 없었다. 이 모임을 통해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참가자의 발표문). 아카이브가 자신의 관점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시민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려는 태도를 가질 때 시민의 인정과 지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공공아카이브는 시민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한다. 기록을 가진 자로서 공공아카이브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만으로는 어렵다. 공공아카이브의 기록을 출처로 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를 제안했다. 이야기 형식을 취했지만, 기록읽기가 꼭 이야기 작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아카이브에 모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면, 다양한 기록읽기 방법이 나올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석만 (2001). 연기의 세계. 서울: 연극과 인간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현 (2022). 김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 을유문화사
- 오도 (2013). 텃밭정원 가이드북. 홍성: 그물코
- 오도 (2013). 씨앗 받는 농사 매뉴얼. 서울: 들녘
- 이경남, 이현정 (2020).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설계와 개발절차. 기록학연구, No.65.
- 이만희 (2009). 그리스 코러스 기능의 전복. *Revista Iberoamericana*, 20-1, 2009 : 1-26
- 이연창 (2022).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31.
- 이영남 외 (2014).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41.
- 이영남 외 (2020).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66.
- 이영남 (2022). 기록학과 쓰기.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71.
- 임지훈 외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51.
- 임지훈 (2019).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 정다현 (2017). 연극기록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레퍼토리 기록화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논문.
- 정혜신 (2018).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 조민지 (2014a).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논문.
- 조민지 (2014b).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39.
- 조민지 (2020). 디지털 기억 시대의 기록과 정보서비스.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No.10.
- 조은성 (2013).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37
- 최문철 (2019). 텃밭농사와 기록농사. 민들레, 124권.
- 홍성씨앗도서관 (2019). 우리 동네 씨앗 도서관. 서울: 들녘
- 황도경 (2014). 문체, 소설의 몸. 서울: 소명출판
- Kayo Munakata (2016). The Way of Playback Theatre. School of Playback Theatre Japan(가요 무나가타 (2022). 플레이백 시어터의 길. 서울: 지만지드라마).
- David Ball (1983). Backwards & Forwards: A Technical Manual for Reading Play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데이비드 볼 (2007). 통쾌한 희곡의 분석. 서울: 연극과 인간).
- Guglielmo Cavallo (1997). Histoire de la Lecture Dans le Monde Occidental, Editions du Seuil(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2006). 읽는다는 것의 역사.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Richard Courtney (1970). Play, Drama & Thought: The Intellectual Background To Dramatic Education. Cassell(리처드 코트니 (2014). 교육연구 입문. 서울: 연극과 인간).
- Lynn Margulis (1999). Symbiotic Planet. Basic Books; Revised ed, edition(린 마굴리스 (2007). 공생자 행성. 서울: 사이언스 북).

- Martin Buber (1995). *Ich und Du*. Reclam Philipp Jun(마르틴 부버 (2020). *나와 너: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ichel Foucault, 渡邊 守章 (2007). *哲學の舞台 増補改訂版*. 朝日出版社(미셸 푸코. *와타나베 모리아키* (2016). *철학의 무대*. 서울: 기담문고).
- Betty Lies (2016). *Earth's Daughters: Stories of Women in Classical Mythology*. Chicago Review Press(베티 본햄 라이스 (2007). *여신들로 본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 두레).
- Stanislas Dehaene (2010). *Reading in the Brain: The New Science of How We Read*. PENGUIN BOOKS(스타니슬라스 드앤 (2017). *글 읽는 뇌: 읽기의 과학과 진화*. 서울: 학지사).
- Oscar G. Brockett (1965). *The Theater: An Introdu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오스카 G. 브로케트 (2014). *연극개론*. 서울: 연극과 인간).
- Ivan Illich(1996). *In the Vineyard of the Text: A Commentary to Hugh's Didascalicon*. A Commentary to Hugh's Didascalicon, Univ of Chicago Pr(이반 일리치 (2016a). *텍스트의 포도밭*. 서울: 현암사).
- Ivan Illich, Barry Sanders. (1989). *ABC: Alphabetization of the Popular Mind*. Vintage (이반 일리치. 배리 샌더스 (2016b).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 서울: 문학동네).
- Ivan Illich (1986). *H2O and the Waters of Forgetfulness*. Marion Boyars Publishers Ltd (이반 일리치 (2020). *H2O와 망각의 강*. 서울: 사월의 책).
- Ian Stewart, Vann Joines (2012).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이언 스투어트. 밴 조인스 (2010). *현대의 교류분석*. 서울: 학지사).
- Jonathan Fox (2019). *Acts of Service: Spontaneity, Commitment, Tradition in the Nonscripted Theatre*. Tusitala Publishing(조나단 폭스 (2018). *플레이백 시어터의 이해*. 서울: 연극과 인간).
- Peter Singer (1995).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Prometheus Books(피터 싱어 (2014).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서울: 시대의 창).
- Peter Singer (2011).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 Pr(피터 싱어 (2013). *실천윤리학*. 서울: 연암서가).